부서진 조각 위 피어난 현대미술 '불완전의 미학'

ACC '파편의 파편: 박치호·정광희'전 4월5일까지

'망각' 시리즈·'파즉전' 등…몰입 돕는 명상공간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정보가 범람하고, 효율과 속도가 강조되는 시대, 가장 인간다움은 무엇일까. 완벽한 결과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불완전함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게 아닐까. 그 숭고한 가치를 조명하는 전시가 펼쳐진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신체의 형(形)이 가장 먼저 맞아준다. '빅맨'은 안정된 테두리 속에서 푸른 빛을 뿜어내는 몸의 일부를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정착되지 않고 표류하는 시선을 유도, 몸 자체에 몰입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형태로 접고 꽂은 장지에 먹물을 들여 화면을 열맞춰 채운 '자성의 길'은 물성 및 우연성을 엿볼 수 있는 동시에, 노동집약적 특성을 바탕으로 작가가 추구하는 성찰의 시간을 시각화한다.

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이 ACC 지역협력협의회의 추천으로 기획해 선보인 '파편의 파편: 박치호·정광희' 전시에서 접할 수 있는 전경이다.

전시에 참여한 박치호, 정광희 작가는 각각 여수, 고흥 출생으로 남도의 중견 작가들이다. 이들은 남도 수묵 정신을 현대적 미감으로 재해석해 가장 지역적인 색채가 어떻게 인간다움이라는 보편적인 질문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전시로 보여준다.

'파편의 파편'이라는 전시 제목은 박치호 작가의 작업노트에서 발췌했다. 삶의 상처와 기억이 단한번의 균열로 끝나지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시 나뉘고 겹쳐지며 깊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파편은 단순한 부서짐의 결과물이 아닌 지난 시간과 경험이 머물다 간 소중한 흔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전시는 파편에 빗대 해석한 두 작가의 시선으로 인간의 불완전함이 지닌 본연의 가치를 따라 간다.

먼저 박치호 작가는 수묵의 번짐 기법을 통해 인간 내면의 상흔을 탐구한다.

신체와 얼굴, 새 등의 형상 위에 겹겹이 쌓인 붓의 흔적은 존재가 관통해 온 고단한 시간과 삶의 조각들을 상징한다. 작가에게 파편은 단순히 부서진 잔해가 아닌 인간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남겨진 소중한 기억이자 존재 그 자체의 증거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모습에서 확장해 시간성이 부여된 사물에 관심을 갖고 가장 자유로웠던 존재가 땅과 맞닿으면서 주목하게 된 '얼어붙은 새', 시간성이 깃들어 있는 '마른 풀'과 '마른 나무' 등을 선보인다. 특히 얼굴이 없는 '망각' 시리즈는 기억을 상실하는 치매의 아픔을 형상화해 망각으로 기억의 본질을 상기시킨다.

박치호 작가가 신체의 파편을 통해 인간의 상흔을 드러낸다면, 정광희 작가는 수묵을 바탕으로 달항아리와 먹이라는 전통 매체를 활용해 사유를 시도한다.

정광희 작가는 온전하지 않아 보이는 조각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의도적으로 깨뜨린 달항아리의 파편을 설치 작업으로 재구성해 상처 입은 존재가 스스로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 세워가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이때 달항아리는 작가에 의해 균열되면서 고정된 틀을 벗어난다. 깨진 조각들이 맞물려 만들어내는 새로운 조형미는 회복과 수양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한다.

한지 위에 먹물이 담긴 달 항아리를 던져 깨뜨리는 '나는 어디로 번질까'는 세상에서의 역할과 사회적 존재의 의미에 대해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굽히면 온전해진다는 '도덕경'의 '곡즉전'에서 영감을 받은 '파즉전'은 무등갤러리와 전남수묵비엔날레, 독일 초청전, 영암 도갑사 등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형성된 달항아리 파편을 한 자리에 모아 놓음으로서 자신을 깨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주인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이 전시의 내용을 각자의 삶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오감을 자극하는 공감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전시 입구에 놓인 질문 카드는 관람객에게 이정표가 돼 전시를 관람하며 작품 속 파편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투영해 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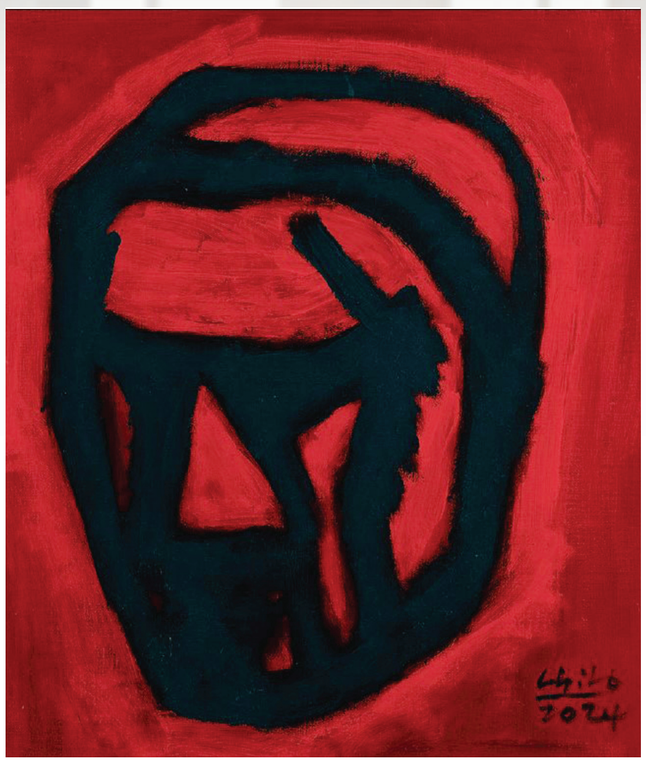
조향된 전용 향기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촉각 인형, 사유에 집중하도록 돕는 명상 공간 역시 마련돼 오감을 아우르는 깊은 몰입과 연대의 장을 선사한다.

박치호 작가는 "산다는 것은 상처 위에 상처가 남고, 그 위에 또다른 상처가 생기는 일이다. 살아있기에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들인 셈이다. 이 상처 덩어리들이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정광희 작가는 "우리가 익숙하게 믿어온 온전함과 예술의 온전함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있다. 그 틈을 따라 고정된 정의를 느슨하게 풀어보려는 시도가 작업의 출발점이다. 서툴고 부족한 상태까지 남겨둘 때, 온전함은 비로소 스스로의 형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상욱 전당장은 "수묵을 기반으로 한 각기 다른 조형언어로 부서짐, 상처, 기억, 회복이라는 보편적 인간 경험을 새로운 미감으로 보여준다. 남도미술이 지닌 깊은 사유와 절제된 미감이 어떻게 국제적인 감성과 맞닿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라며 "이번 전시가 오늘을 사는 모든 이들이 겪는 마음의 균열을 조용히 보듬어 주는 회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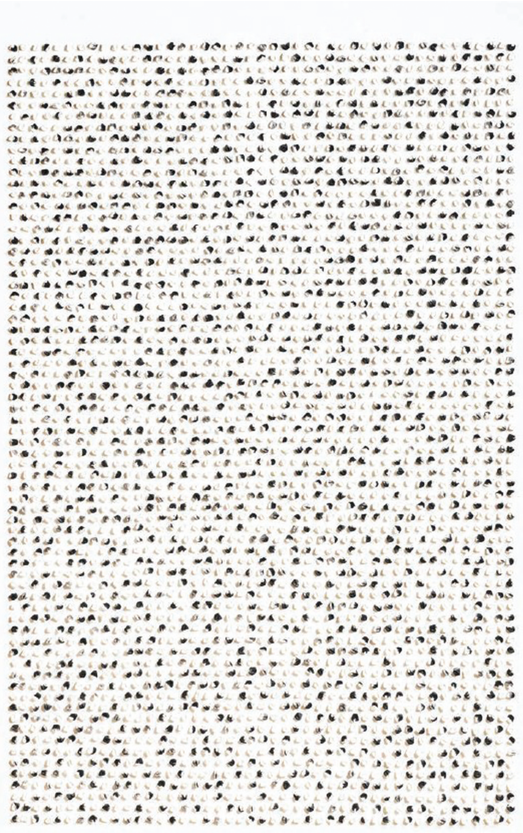
전시는 지난 11일 개막, 오는 4월 5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전시6관에서 진행된다.

글·사진=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박치호 작 '고뇌'

▼ 정광희 작 '자성의 길'



박치호

정광희

평화 메시지 남긴 '구상의 시 세계' 조명

본보 신춘 평론 출신 김재홍씨 비평집 펴내…주요 연작시 조망

시와 평론을 쓰고 문예지를 관할하며 매일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김재홍씨가 문학평론집 '구도자의 산책'을 천년의시작 비평선 스물여섯번째권으로 최근 펴냈다.

김 작가는 2022년 광남일보에 문학평론 '고독은 크로노스의 뒤통수를 부여잡고-이경림론'이 당선돼 평론가로 데뷔했다.

이에 앞서 2003년 에는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메히아'가 당선돼 등단했다. 구상 시인(1919~2004)의 제자다. 시와 평론이라고 하는 두 영역의 글쓰기에 걸쳐진 작가의 문학적 사유는 이성과 감성을 넘나드는 듯한 형국이다.

이번 평론집은 전쟁과 대립의 시대를 살면서도 가톨리시즘을 바탕으로 대긍정과 평화의 메시지를 남기고 간 구상의 시 세계 전반을 본격적인 작품론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한국 시사에서 연작시 형식의 개척자로 불리는 구상의 주요 연작시를 모두 다뤘으며, 주요 개별 작품들도 두루 대상으로 삼았다.

또 일상어의 전면화를 이룩한 그의 시적 기법을 집중 조명한 '표현하기와 전달하기의 긴장 - 구상의 시적 기법에 대하여'는 그간 평단의 논급들과 달리 매우 세밀한 층위에서 구상 시의 기법을 분석한 글로 주목된다. 이번 평론집에는 세 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북한 원산 지역에 있던 베네딕도수도원 부설 신학교를 다니며 신부가 되기를 바랐던 구상의 삶에 가톨릭교회와 가톨리시즘이 지니는 의미를 다룬 '구상 시에 나타난 가톨리시즘적 일원론'은 플라톤주의적 이원론을 벗어난 그의 일원론이 궁극적으로 이념대립과 냉전 시대를 살면서도 비대립적 평화의 시를 추구할 수 있는 근거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 '밭 일기', '모과 옹두리에도 사연이' 등의 연작시를 통해 구상이 보여 준 영원회귀 의식을 다룬 '구상의 연작시와 영원회귀 의식'은 '신의 죽음'을 선언한 니체 철학의 진정한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저자는 니체의 주장이 신에 대한 무신론적 부정의식이 아니라 명령하는 신, 구속하는 신, 강제하는 신에 대한 극복을 지향함으로써 오히려 '신과의 화해'를 꿈꿨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논문인 '구상의 위기의식과 연속성의 시적 사유'는 '까마귀', '그리스도 폴의 강(江)', '유치찬란' 등의 연작시에 보이는 구상의 사회 참여적 태도에서 위기의식을 읽어내고, 그것을 통해 그가 베르그송과 화이트헤드, 들뢰즈와 가타리로 이어지는 연속성의 형이상학을 시화했음을 분석하고 있다.

청년기에 만난 '은사 할아버지'의 작품을 중년의 시인이자 비평가가 돼 다시 읽었다는 작가의 감성적·이지적 내면이 탐구해낸 구상의 시 세계가 이번 평론집에 오롯이 담겨 있다.

김재홍 시인은 강원도 삼척 출생으로 중앙대 문예창작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시영 시 연구-비대칭성의 시론적 가능성 탐색'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시집 '메히아', '다큐멘터리의 눈', '주름, 펼치는', '돼지촌의 당당한 돼지가 되어', '기린으로 떠난 사람'이 있으며, 연구서 '현대시의 비대칭성과 상징성'과 평론집 '분열자의 산책', 산문집 '너를 생각하고 사랑하고'가 있다. 2011-201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 예술인력으로 선정됐고, 2017년 박두진문학상 젊은시인상, 2023년 시작문학상, 2024년 한국가톨릭문학상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가톨릭대 초빙교수와 국민대 외래교수를 맡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상상이 현실로' 놀이로 시작하는 유아 AI체험

광주과학관 특별교육 'AI 씽씽스팀'…24일까지 접수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겨울방학을 맞아 누리과정을 대상으로 한 실물 기반 인공지능(AI)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AI 씽씽스팀'을 운영한다.

이번 겨울방학 특별교육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누리과정 대상인 6~7세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어린이들이 인공지능(AI)을 단순히 관람하는 내용이 아닌, 직접 보고, 듣고, 말하며 상호작용하는 체험 중심 교육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AI 씽씽스팀'은 이번 겨울방학 특별 운영을 통해 교육 난이도, 흥미도, 연령 적합성 등 교육 효과를 검증한 후 내용을 고도화해 향후 정기 교육과정으로 확대 운영하며 체계적인 누리대상 인공지능(AI) 교육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총 3차시로 구성된 이번 교육을 통해 AI 카메라와 AI 스피커, 라인 터틀봇, 팬더봇 등 다양한 AI 로봇을 조작해 볼 수 있다. 특히 놀이, 그림, 조작 활동과 연계해 인공지능(AI)의 인식·판단·반응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설계했다.

차시별로 AI 카메라, AI 스피커 로봇과 상호작용하며 시각·청각 인식 원리를 탐구하는 보고 듣고 말하는 AI 친구들, 내가 그린 선을 따라 이동하는 AI 거북이의 길찾기 여행, 다양한 역할의 로봇으로 변신하며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팬더봇과 함께하는 AI 변신탐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이번 교육 과정에 참여형 이벤트 개최와 더불어 교육 활동 사진도 제공하며 어린이들의 참여 만족도를 높이고, 보호자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접수는 오는 24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 또는 웹포스터 QR코드를 접속해 하면 된다.

특별교육을 기획한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교육실 송미금 선임연구원은 "AI 기술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들어서며 어린이 때부터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이번 겨울방학 특별교육을 시작으로 누리대상 AI 문해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